

제주신화월드 2단계 사업 추진 ‘난항’

**람정개발(주) CEO 체포후 카지노 적자 심화
6월 1107억 매출... 8월엔 206억원 적자 기록
2020년 예정인 포시즌스 호텔 개장도 미지수**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주) 양지혜 회장이 체포되면서 2단계 사업 정상 추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 회장 체포 이후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어 경영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양 회장이 중국 공안에 긴급체포됐다.

양 회장의 체포된 것에 대해 중국과 필리핀 언론들은 중국 금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은닉사건인 화물차

산관리공사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양 회장은 제주신화월드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홍콩에 람정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람정제주개발(주)은 현재 람정인터내셔널로부터 1조 7290억원을 차입한 상태이다. 람정인터내셔널은 화통그룹 홍콩 상장회사와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회장 체포 이후 람정인터내셔널 주식은 홍콩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완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2단계 사업 추진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신화리조트와 라이언스케이

트 무비월드·포시즌스 호텔을 개장하는 것으로, 신화리조트는 올해 연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라이언스 게이트 무비월드 허가 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시즌스 호텔은 정상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은 포시즌스 호텔측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양 회장 체포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양 회장 체포 이후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내로 옮기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후 지난 3월 카지노 매출액은 118억원, 6월에는 1107억원을 기록했으나 8월에는 20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계 복합리조트인 경우 카지노가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카지노 영업이 부진할 경우 복합리조트 전체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람정제주개발(주)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국내 증권사와 신탁사를 주관사로 담보대출 대주단 모집에 나서 케이프투자증권을 통해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가운데 1500억원 규모 대출채권의 만기는 2019년 9월 말이며, 나머지 1000원은 2020년 9월 말이다. 또 람정인터내셔널의 차입금 1600억원의 외화대출 만기는 2019년 3월 말이다.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경영악화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람정제주개발(주)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들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이제는 농사도 드론으로...”

농업기술원·서부농기센터 농업용 드론 교육

서부농업기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용 드론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12·14일 이틀간 농업인교육관 및 잔디밭에서 2018 강소농 및 교육희망 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활용 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씩 총 8시간 과정이며 1일차에는 농업용 드론의 이해, 항공법규, 항공방제이론, 위급상황 대처 등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2일차에는 조종원리, 기본조작법, 배터리 관리,

고도변화 적응비행 등 실습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12·14일 이틀간 강창학경기장에서 연구·지도직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교관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도 오는 10월 1~5일 사이 나흘 과정으로 드론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9월 17일 오전 9시부터 모집인원 14명 마감시까지 전화로 선착순 접수한다. 교육 관련 상담은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재해팀(760-7541)으로 문의 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제주도 지난해 못 쓴 예산 1조520억원

도의회 정례회... 집행잔액 등 문제 집중 제기

제주도가 한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52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불용액), 세수 추계, 기금 등과 관련해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의 세입이 5조9000억원(전년도 이월금 포함한 예산 현액)에 달하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는 금액이 1조520억원”이라며 “장기미 집행도시계획시설, 쓰레기난, 주거난, 교통난 등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이어 “특히 주택난과 주차난, 토지문제, 원도심 문제 등이 심각함에도 주거안정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타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이 734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도 “최근 3년간 본예산에 잡은 사업조차도 대부분 이월되고, 전년도에 남은 사업까지 40% 넘게 다시 이월된다는 것은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비를 확보해도 2000억원 이상 이월시켜 2016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국비 집행률이 88%이지만 제주

78%로 전국 꼴찌”라고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204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2%이고, 행자위 소관 집행잔액은 92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2%”라며 “행자위 소관 집행잔액을 보면 정책사업은 420억원 정도 줄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는 130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는 예산을 안일하게 편성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종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이월되는 것이므로 이월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해에 집행될 사업비만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총력

**특별보증 240억원으로 확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도 늘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2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절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연체당 3000만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애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p 상향 지원(2.8%→3%)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원에서 140억원



강남으로 떠날 채비하는 제비들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가득하다.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번식을 마친 제비들이 월동지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떠날 준비를 위해 12일 저녁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마을 전깃줄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달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고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는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차 행위에 대해서 부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또 오는 11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동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 증대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삼화지구 내에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을 설치 운영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령·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상향 지원(2018년 월 1만원/연 12만원→2019년 월 2만원/연 24만원)하고 또한 상인대표,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농심(農心)을 가슴에 안고 농민(農民) 곁으로!” 또하나의 가을

‘18년 월동무 가격안정을 위해 적정면적을 재배 합시다 !!

무 재배 농업인 여러분 !

‘18.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관측에 의하면 ‘18년 월동무 재배예상 면적은 ‘17년 최대 재배면적 보다는 4% 증가하고 평년 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종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무 파종에 대한영농계획을 세웁시다. 적정면적 재배가 원활한 유통처리와 가격안정의 첫 단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실제 파종면적을 조정하려는 영농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 재배 농업인 여러분 스스로 적정면적 재배 실천합시다.



농협제주지역본부